

① 癇疾, ② 發狂 驗方

鄭 鍾 和
(三和 韓藥房)



數代걸친 家傳秘方으로 百發百中效率이 있기에 會誌에 發表한
다

1. 急驚爲癇 (小兒 及驚으로 因한 三種(牛,馬,羊)癲癇)

● 三癲丹

蜈蚣 1條 牛膽南星 20 全蝎 白附子 防風 遠志 蘆薈 玄胡索 辰
砂 各10 麝香1 字(3~5分) 爲末糊丸 綠豆大 金箔爲衣

• 用量 . 2~3歲는 每1丸 3~4歲는 2丸 5歲는 3丸 6歲는 4丸 7歲는 5丸

본 방은 本人의 先親때부터 내려오는 家傳秘方이다 倭政때 일이다 鄭氏의 7歲된 아들이 羊癲症이 아주 甚하였는데 先親께서 그 父母에게 3年限하고 服藥토록 指示하고 投藥을 하였는데 果然 3年後에 完治되었다 몇年前에 日本에서 왔다는 한 교포가 찾아와 말하기를 自身の “父親께서 益山, 黃登의 三和堂藥房에서 癲疾을 治療하여 내 그 恩惠를 잊지 못한다 故國을 가면 한번 찾아보아라” 하여 왔다고 人事를 받은 일이 있다.

編輯者 註 왜정때부터 益山の 삼화당약방하면 癲疾 잘 낫는 藥房으로 有名하였다 數많은 患者를 治療하여 지금의 代를 이은 삼화당약방이 되었다

2. 發狂

● 加減溫膽湯

治 痰迷心竅 神不守舍 因憂思鬱結 驚恐傷心 心不自安 神出舍空 使人 驚悸怔忡 煩亂 悲歌 叫喚 奔走 不識人.

茯神 半夏製 陳皮 枳實 梔子炒 白朮 麥門冬 黃連 各10 當歸 酸棗仁炒 竹茹 各08 人蔘 06 甘草 03 辰砂末 05 調服 薑3 棗2 梅1個

• 用法 . 1日 3回 食後服 辰砂末은 朝夕 2回만 竹瀝 半盞에 調服함.

■ 驗 方

요즈음에는 이 病으로 韓藥房을 찾아오는 환자는 드물다.

解放될 무렵 三代獨子였던 徐○均이라는 18歲쯤의 師範學校學生이 甚한 狂症으로 百藥이 無效하여 名醫를 찾던 중 壯丁 2~3名에 끌려 왔다. 중얼거리고 달아나려 하고 욕설을 하고 나무라기도 하는 病症은 完全이 미쳐 있었다

이에 본 방으로 治療를 始作하여 4個月간 服藥후 完治되었다.

많은 謝禮도 받았지만 그는 學業을 繼續하여 학교 졸업후 教師로서 무난하게 停年을 맞이 하였다

70歲를 바라보는 나이지만 지금도 우리 약방에를 자주 찾아와서 이야기 꽃을 피우곤 한다

(全北 益山市 黃登面 T. 856-4543)



治病 三法

新病에는 去邪니 大劑로 猛治할 것이오

稍久에는 養正이니 寬猛으로 兼治할 것이오 - 東垣 -

久病에는 藥必 平和니 寬治와 緩治할 것이다 - 入門 -